

제82호(2013. 12. 18.)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김 동 원 박 혜 진

1. 조사 개요	3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4
3.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 수요	9
4.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차이 인식과 정주 의사	15
5. 요지 및 시사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내용 문의:	김동원 연구위원	02-3299-4227	dongweon@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는 새정부 출범으로 농정의 틀을 다시 짜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시기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응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음.

농촌 현실과 미래를 보는 농업인들의 의식은 전반적으로 긍정보다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하지만, 납세자이면서 소비자인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등 희망적인 요소도 발견되었음.

농업인들은 농사 불만족 요인으로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를 들고 있어 소득안정 대책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 ‘FTA 확대’, ‘생산비 증가’를 꼽고 있는데, 특히 일손 부족 해소에 대한 요구가 커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도시민들은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농촌 복지예산 증액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데, 판단을 유보한 도시민도 50% 내외로 나타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한 새 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으며,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농촌복지와 소득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 향후 5년간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농업정책 분야로는 ‘농가소득 안정’,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음.

6차산업화 등 창조경제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농업인이 48.0%에 달해 교육과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농업인들은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현안을 ‘한-중 FTA’,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농식품부 예산 증액’ 순으로 꼽아 정책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농업인의 농촌생활 불만족 요인은 ‘소득원·일자리 환경’, ‘문화·체육·여가 환경’, ‘교육 환경’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고용·문화·교육 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됨. 농업인의 행복지수는 5개 분야 종합 67점으로 기존에 조사되었던 국민 행복지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재정 상태 행복도는 53점에 그쳤음.

새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계획 마련과 한-중 FTA 협상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가 향후 중장기 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함.

1. 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의식 변화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¹⁾
-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올해 2월 출범한 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 및 정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로 설계, 방문면접 및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그룹 등 국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도시민 1,500명, 농업인 552명이 참여한 유효 조사표 2,052건을 확보하여 분석함
-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 수요,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차이 인식과 정부 의사 등이며 이 자료에서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만을 정리하여 게재함

<표본 선정과 응답자 현황>

- 도시민(면접 1,500명):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추출, 1:1 방문 면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pm 2.5\%p$ >
- 농업인(응답자 552명): 당 연구원 전국 현지통신원 1,000명 대상 우편조사
<당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은 연구 활용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로, 각 인구특성별 분포는 농촌사회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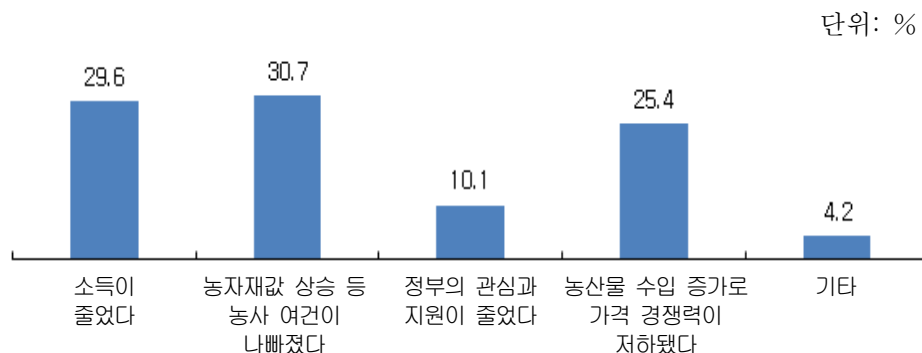
1) 이 조사는 1978년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06년부터 도시민을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식 조사로 확대하였음. 연구 활용이라는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과거 조사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여론조사와 패널 형태의 조사를 병행함.

2.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과 가치 인식

□ 올해 농사 10명 중 3명만 만족, ‘농사여건 악화’

-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사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33.0%로 ‘불만이다’ 34.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n=189)의 불만족 이유는 ‘농자재값 상승’(30.7%), ‘소득 감소’(29.6%), ‘농산물 수입 증가로 가격 경쟁력 저하’(25.4%), ‘정부의 관심과 지원 감소’(10.1%) 등으로 나타남
 - 60세 미만 계층에서는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60세 이상 계층에서는 ‘농자재값 상승’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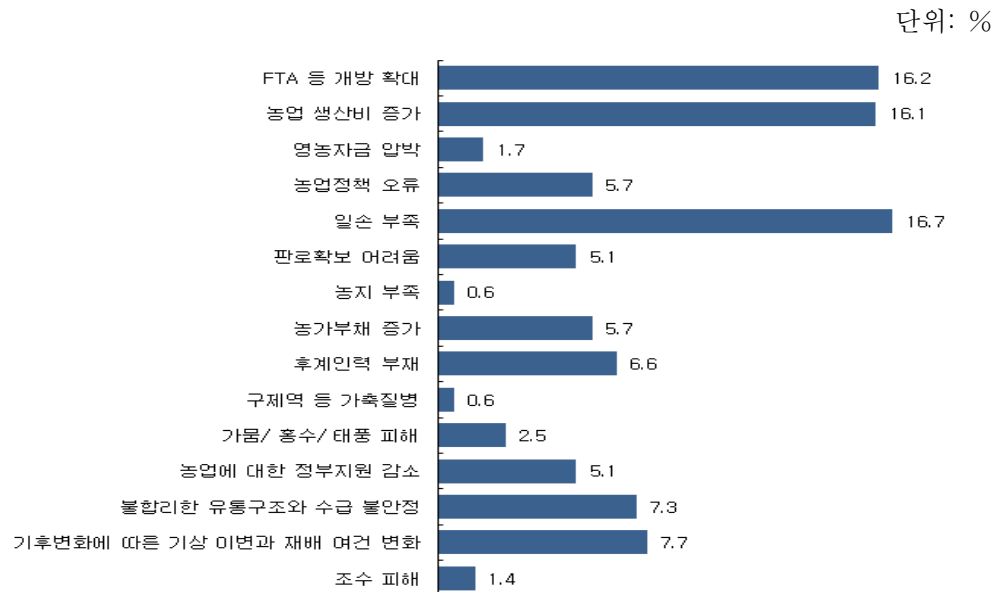
그림 1. 올해 농사 불만족 이유(농업인)



□ 농가 경영위험으로 ‘일손 부족’ 가장 많이 꼽아

- 농업인이 올해 느낀 경영의 위협 요인으로, ‘일손 부족’(16.7%), ‘FTA 등 개방 확대’(16.2%), ‘농업 생산비 증가’(16.1%)를 가장 많이 꼽았음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7.7%), ‘불합리한 유통 구조와 수급 불안정’(7.3%) 등도 위협 요소로 꼽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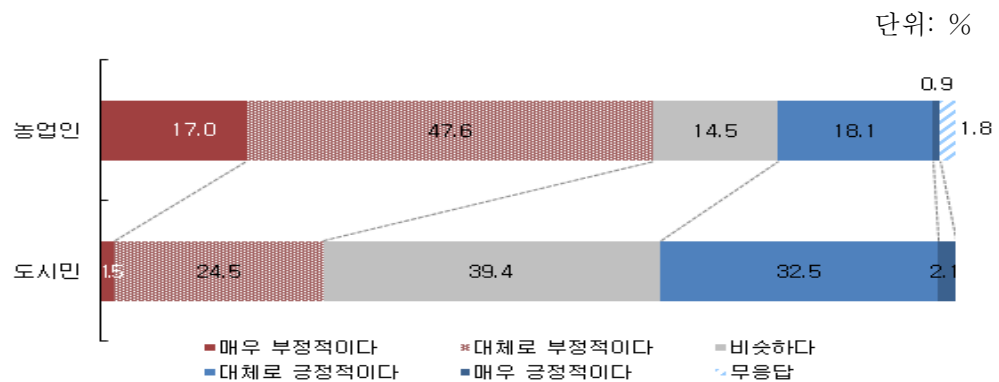
그림 2.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소(농업인)



□ 농업의 발전 가능성 인식,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긍정적

- 다른 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부정적’ (64.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9.0%)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높았음
- 반면, 도시민은 ‘긍정적’(34.6%)이라는 응답이 ‘부정적’(26.0%)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타 산업과 비교한 농업의 발전 가능성



○ 10년 후 한국농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희망적’이라는 응답이 도시민 27.3%, 농업인 18.3%로 도시민 집단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54.3%, 도시민 30.3%이며, 농업인은 긍정적인 전망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해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도시민이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안다’는 응답이 30.2%, ‘모른다’는 응답이 31.9%로 비슷하게 나타남

-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에 대해 남자, 연령이 많을수록, 저학력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우리나라 농업의 실상과 농촌 문제 인지 정도(도시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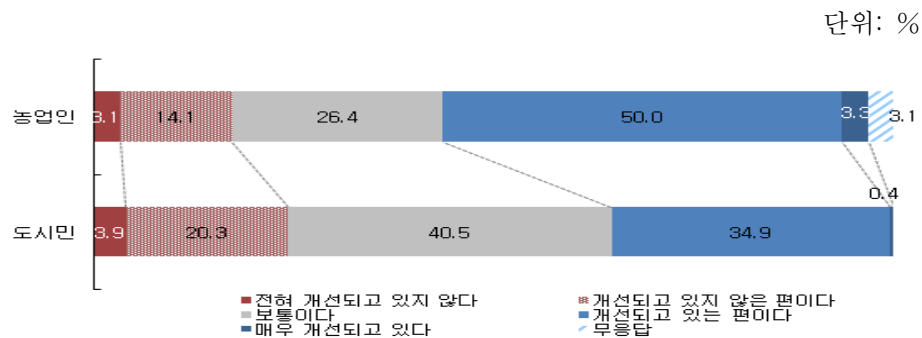
구 분		보 기 항 목								계	평균 (점)	F
응답자 특성		(사례수)	①+② 모른다		보통 이다	④+⑤ 안다						
			① 전혀 알지 못한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④ 대체로 아는 편이다	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전 체		(1,500)	23	29.5	31.9	37.9	28.3	1.9	30.2	100.0	3.0	
성별	남 자	(754)	1.3	27.2	28.5	37.0	31.7	2.8	34.5	100.0	3.1	18.46**
	여 자	(746)	3.4	31.9	35.3	38.9	24.8	1.1	25.9	100.0	2.9	*
연령별	19 ~ 29세	(308)	4.5	47.7	52.3	31.8	14.6	1.3	15.9	100.0	2.6	34.66** *
	30 대	(339)	2.7	37.8	40.4	35.1	24.2	0.3	24.5	100.0	2.8	
	40 대	(367)	2.7	21.8	24.5	41.7	31.9	1.9	33.8	100.0	3.1	
	50 대	(319)	0.6	19.1	19.7	42.9	34.8	2.5	37.3	100.0	3.2	
	60세 이상	(167)	0.0	16.2	16.2	37.1	41.3	5.4	46.7	100.0	3.4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5)	0.8	18.4	19.2	40.0	35.2	5.6	40.8	100.0	3.3	10.81** *
	고 졸	(655)	2.0	26.3	28.2	38.5	31.0	2.3	33.3	100.0	3.1	
	대재 이상	(718)	2.9	34.4	37.3	37.0	24.7	1.0	25.6	100.0	2.9	
	무 응 답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2.5	

주: *p<.05, **p<.01, ***p<.001

□ 국산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농업인과 도시민 인식차 커

-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개선되고 있다’(53.3%)는 응답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17.2%)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 도시민은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이 35.3%,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4.2%로 나타나 양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최근 5년간 국산 농식품 안전성 개선 정도 인식



- 수입산과 비교하여 국산 농축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 신선채소, 과일, 한우, 돼지고기, 쌀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응답함. 도시민은 쌀, 한우, 신선채소, 돼지고기, 과일 순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응답함

□ 농업인 세제 혜택,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 의견 많아

-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긍정적’(34.1%)이라는 도시민 응답이 ‘부정적’(15.4%)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음
 -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계층, 농촌 거주 가족이 있는 계층에서 농업인 세제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농업인의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도시민)

단위: %

구 분			보 기 항 목							계	평 균 (점)	F	
응답자 특성		(사례수)	①+② 부정적		보통 이다	④+⑤ 긍정적							
			① 매우 부정적	② 대체로 부정적		④ 대체로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전 체			(1,500)	1.4	14.0	15.4	50.5	31.4	27	34.1	100.0	3.2	
농촌 거주 경험	있 다	(742)	1.9	11.7	13.6	46.6	36.4	3.4	39.8	100.0	3.3	15.2***	
	없 다	(758)	0.9	16.2	17.2	54.4	26.5	2.0	28.5	100.0	3.1		
농촌인 가족 존재별	있 다	(543)	1.5	10.9	12.3	48.1	35.9	3.7	39.6	100.0	3.3	13.51***	
	없 다	(957)	1.4	15.8	17.1	51.9	28.8	2.1	30.9	100.0	3.2		

주: *p<.05, **p<.01, ***p<.001

-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로 ‘반대한다’ 12.9%보다 높게 나타남

3. 새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정책 수요

□ 새 정부 농정, 복지정책과 소득정책에 기대감 높아

- 현 정부가 행복한 농어촌 건설을 기조로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 도시민의 29.9%, 농업인의 2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도시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 집단이 불만족 비율보다 만족 비율이 높았음
 - ‘불만’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11.0%, 농업인 20.1%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각 59.1%, 51.8%로 집계됨
-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 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정책’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정책’(32.6%), ‘소비·유통’(24.8%), ‘농업정책’(22.1%)의 순으로 나타남. 4개 항목 모두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0% 초반으로 나타나 평가가 엇갈렸음
 - 도시민은 ‘소득정책’에 기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정책’(46.5%), ‘소비·유통’(43.5%), ‘농업정책’(41.9%) 순으로 나타남.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 미만으로 농업인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음

표 3.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기본 방향에 대한 만족도(기대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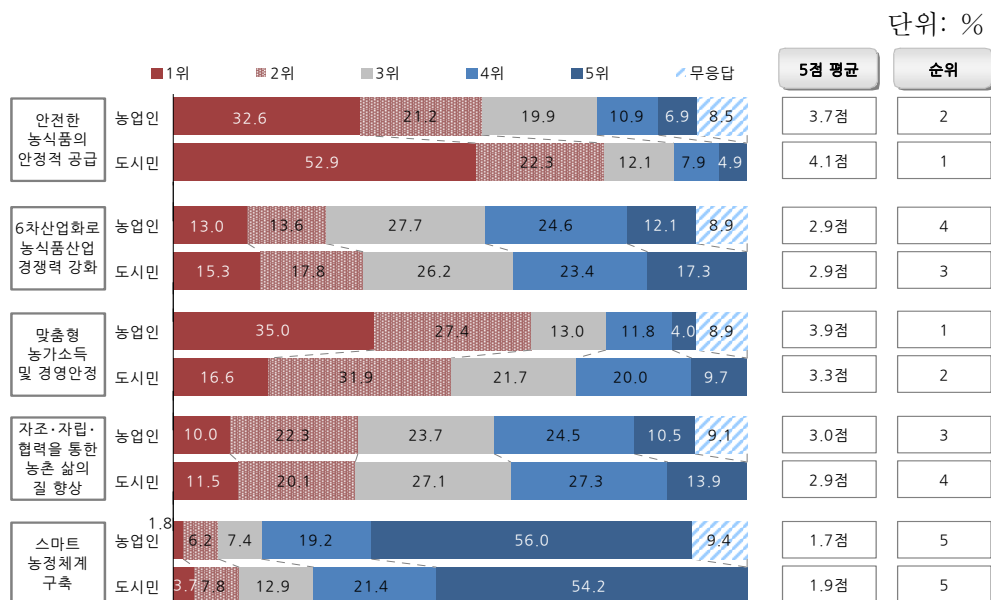
구 분			보 기 항 목							무 응 답	계	평균 (점)	F
응답자 특성		(사례수)	①+②		그저 그렇다	④+⑤							
			① 매우 불만	② 대체로 불만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만족					
농업 정책	농업인	(552)	6.0	17.6	23.6	46.0	19.9	2.2	22.1	8.3	100.0	2.9	113.54***
	도시민	(1,500)	1.1	6.9	8.1	50.1	39.6	2.3	41.9	-	100.0	3.4	
소득 정책	농업인	(552)	5.6	16.3	21.9	37.3	28.8	3.8	32.6	8.2	100.0	3.1	68.69***
	도시민	(1,500)	0.4	10.2	10.6	41.0	40.5	7.9	48.4	-	100.0	3.5	
복지 정책	농업인	(552)	5.1	17.0	22.1	33.3	31.7	4.7	36.4	8.2	100.0	3.2	42.00***
	도시민	(1,500)	1.2	8.5	9.7	43.7	38.7	7.8	46.5	-	100.0	3.4	
소비· 유통	농업인	(552)	4.5	19.0	23.6	43.5	21.2	3.6	24.8	8.2	100.0	3.0	80.14***
	도시민	(1,500)	1.6	7.6	9.2	47.3	39.8	3.7	43.5	-	100.0	3.4	

주: *p<.05, **p<.01, ***p<.001

□ 5대 농정과제 중요도 1순위 농업인-소득안정, 도시민-안전식품

-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7월에 발표한 5대 주요 농업정책 과제의 중요도에 대해서, 농업인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이 3.9점으로 중요도 순위가 가장 높은 반면,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은 농업인, 도시민 모두 중요도 순위 점수가 각각 1.7점, 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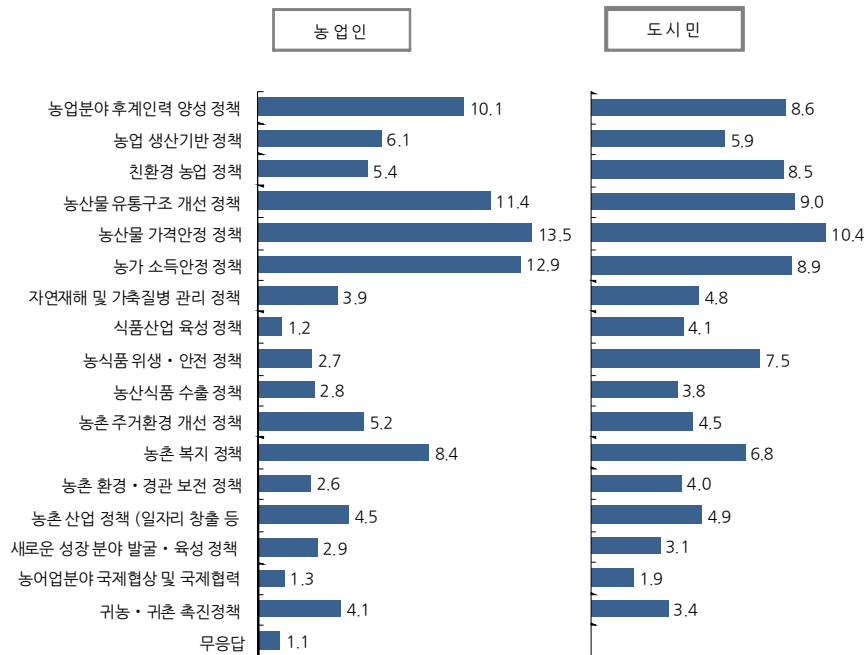
그림 5. 5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중요도 순위



- 향후 5년간 농업정책 분야 중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해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농가소득 안정정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꼽음
 - ‘친환경 농업정책’ 및 ‘농식품 위생·안전정책’에 대해서는 농업인보다 도시민의 응답 비율이 높아 견해 차이를 보임

그림 6.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농업정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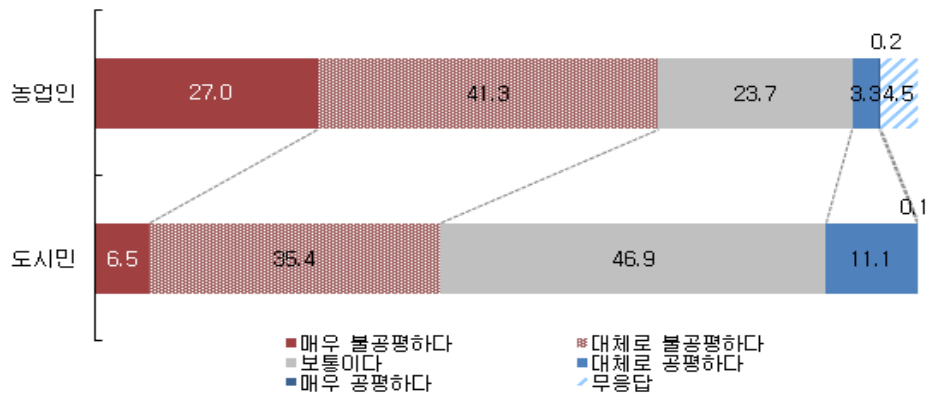


□ 도시민 10명 중 6명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별도 보상’ 필요

-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에 대해 농업인의 68.3%, 도시민의 41.9%가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여 농업인이 보상에 대한 공평성에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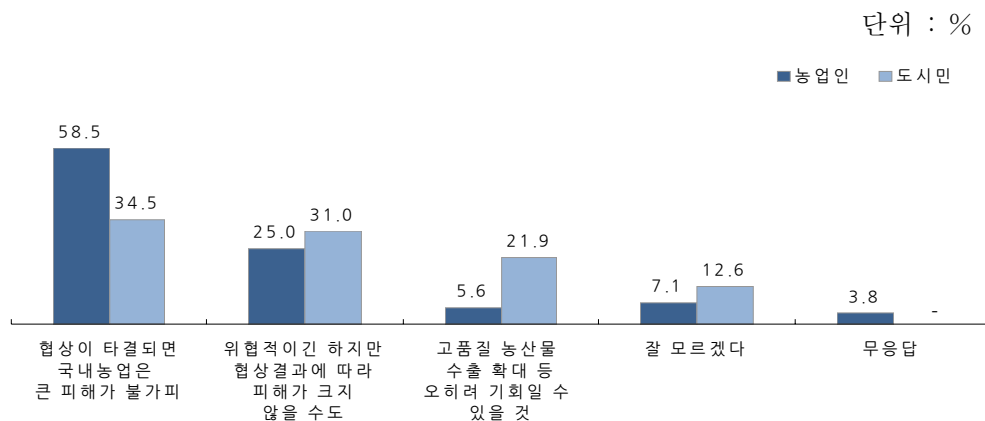
그림 7. FTA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에 대한 공평성 인식

단위: %



- 한-중 FTA에 대해서는 농업인, 도시민 모두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농업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각각 58.5%, 34.5%)이 가장 많았으나,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중 FTA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는 농업인이 5.6%인 데 반해 도시민은 21.9%로 견해 차이가 크게 나타남

그림 8. 한-중 FTA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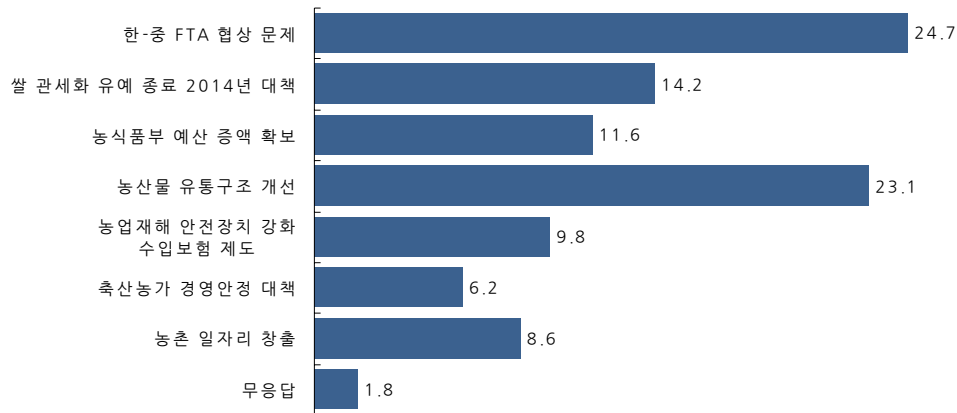
- FTA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보상 방안으로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0.4%)가 ‘국가 차원에서 농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 마련’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을 농업 분야에 배분’이라는 응답이 33.1%로 나타남

□ 농업인 절반은 ‘창조경제’ 잘 모른다고 응답

- 6차산업화 등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농업인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안다’는 응답이 48.2%, ‘모른다’는 응답이 48.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농촌 정책 현안으로는 ‘한-중 FTA 협상 문제’(27.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23.1%)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쌀 관세화 유예 종료 2014년 대책’(14.2%)과 ‘농식품부 예산 증액 확보’(1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내년에 가장 역점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농업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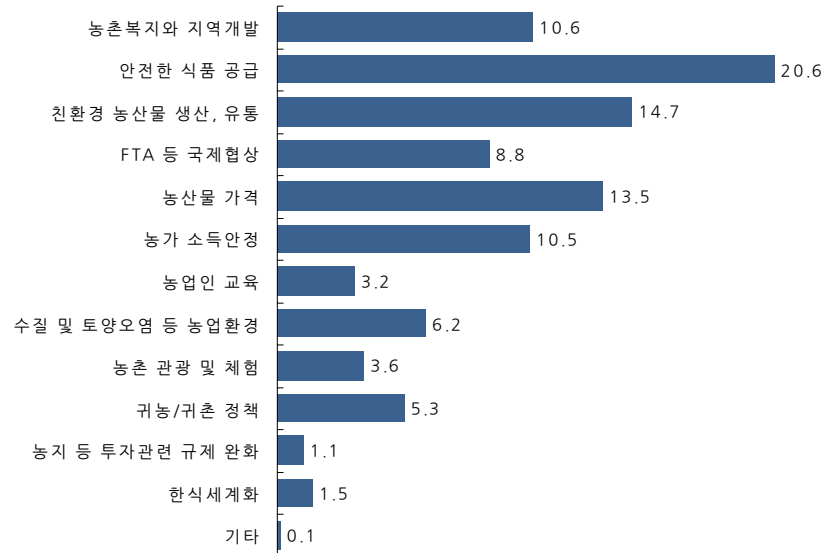


□ 도시민, 시골 공동화 우려, 안전식품 정책 수요 최대

- 도시민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농업·농촌을 생각하면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농촌인구 노령화로 인한 시골의 공동화’라는 응답은 대구·경북, 광주·전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민이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식품 공급’(20.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14.7%), ‘농산물 가격’(13.5%) 순으로 나타남

그림 10. 가장 관심 있는 농업정책 분야(도시민)

단위: %



□ 도시민, 농촌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 ‘주말농장’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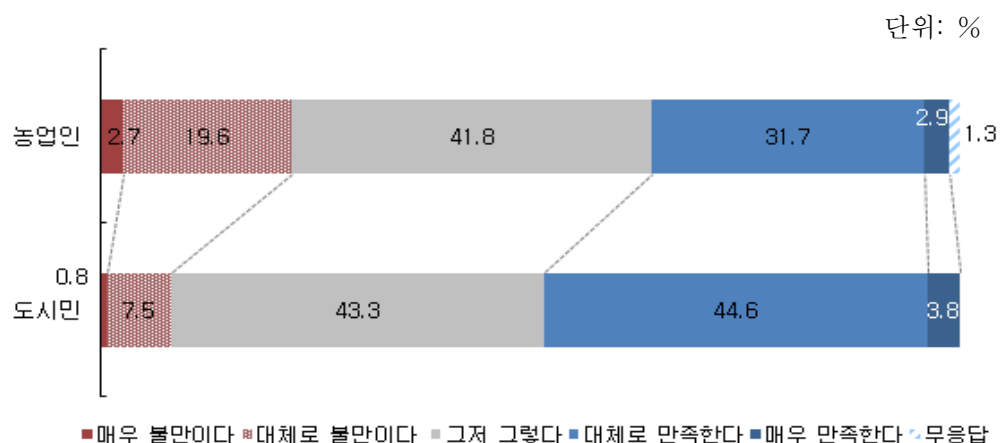
- 농촌에서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에 대해 도시민의 29.5%가 ‘주말농장’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통 테마마을 체험’(20.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광주·전라 지역, 남자 계층에서 ‘주말농장’이라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통 테마마을 체험’이라는 응답은 여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여가활동이나 관광여행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27.9%가 ‘교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숙박시설’이 26.4%, ‘주변 환경 청결 미흡’이 24.6% 순으로 나타남

4.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 차이 인식과 정주 의사

□ 주거 환경 만족도 도시민이 농업인보다 13.8%p 높아

- 현 거주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도시민 48.4%, 농업인 34.6%로 나타났으며, ‘불만이다’라는 응답은 농업인 22.3%, 도시민 8.3%로 나타났음
 - ‘보통’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 도시민은 43.3%, 농업인은 41.8%로 ‘만족’, ‘불만’ 의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11. 현 거주지역의 주거 환경 만족도



- 현재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75.5%, 도시민의 70.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농업인, 도시민 모두 빈부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는, 불만이라는 응답은 ‘소득원·일자리 환경’(59.4%)에서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여가 환경’(53.6%), ‘교육 환경’(44.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주거 환경’과 ‘이웃 환경’은 각각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30.4%, 27.9%로 불만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표 4. 분야별 지역생활 만족도(농업인)

단위: %

구 분		보 기 항 목							무응답	평균 (점)
항목	(사례수)	① 매우 불만이다	② 대체로 불만이다	①+② 불만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④+⑤ 만족		
주거 환경	(552)	20	16.3	18.3	48.2	27.4	3.1	30.4	3.1	3.1
교육 환경	(552)	12.1	32.4	44.6	38.4	12.7	0.5	13.2	3.8	2.6
대중교통 환경	(552)	5.8	23.9	29.7	41.8	23.6	1.6	25.2	3.3	2.9
쓰레기·환경관리	(552)	9.1	24.6	33.7	37.3	24.6	0.9	25.5	3.4	2.8
보건의료 환경	(552)	9.8	24.6	34.4	37.5	22.6	1.3	23.9	4.2	2.8
문화체육여가 환경	(552)	14.1	39.5	53.6	29.5	12.1	0.7	12.9	4.0	2.4
소득원·일자리 환경	(552)	17.9	41.5	59.4	30.3	5.4	0.5	6.0	4.3	2.3
이웃환경	(552)	2.5	14.3	16.8	51.4	25.4	2.5	27.9	3.8	3.1

주: *p<.05, **p<.01, ***p<.001

□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 농업인이 더 크게 느껴

-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의 67.2%, 도시민의 53.0%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도농 간 생활수준 격차에 심각성을 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를 100으로 했을 때 농촌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 도시민 모두 ‘40~60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0~80 미만’ 순으로 나타남
- 현재 농촌지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농업인은 70.3%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좋다’는 응답은 4.7%에 그침
 - 도시민은 ‘보통이다’(45.5%)는 유보적인 응답이 ‘좋지 않다’(41.0%)는 응답보다 높게 나와 농업인과 농촌지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시민 10명 중 4명 ‘귀농·귀촌 의향’

-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43.6%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2.7%는 ‘이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제주·강원 지역,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없다’는 응답은 서울 지역, 학생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은퇴 후 귀농·귀촌 여부(도시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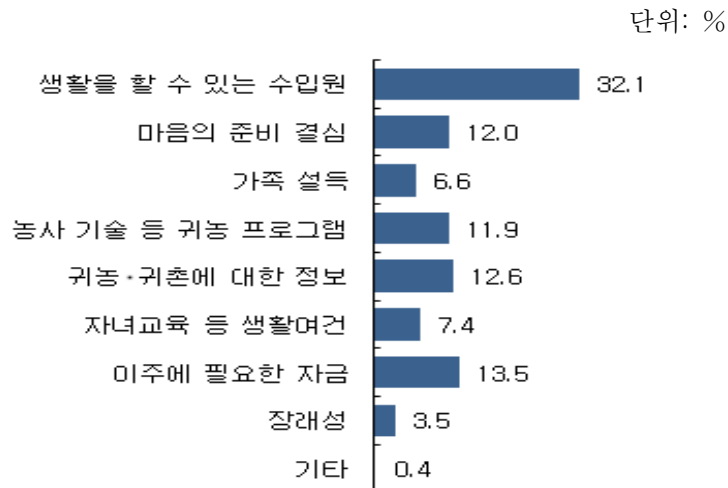
구 분			보 기 항 목						잘 모르 겠다	χ^2
응답자 특성	(사례수)	①+② 없다		③+④ 있다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조금 있다	④ 매우 많다					
전 체		(1,500)	19.7	32.9	52.7	28.6	15.0	43.6	3.7	
직업별	농·임·어업	(8)	37.5	12.5	50.0	37.5	12.5	50.0	0.0	71.149***
	화이트칼라	(369)	17.6	37.1	54.7	28.2	11.9	40.1	5.1	
	블루 칼라	(385)	23.6	33.0	56.6	28.3	13.0	41.3	2.1	
	자 영 업	(309)	17.2	21.4	38.5	33.3	24.6	57.9	3.6	
	주 부	(301)	15.9	37.5	53.5	27.2	15.3	42.5	4.0	
	학 생	(128)	28.1	39.1	67.2	21.9	6.3	28.1	4.7	

주: *p<.05, **p<.01, ***p<.001

- 은퇴 후 귀농·귀촌하고 싶다는 도시민(n=654)을 대상으로 귀농·귀촌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17.7%),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의 한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8.3%),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향후 농촌거주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가 5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년 이후’(27.2%), ‘10년 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도시민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입원’을 32.1%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이주에 필요한 자금’(13.5%),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귀농·귀촌에 필요한 조건(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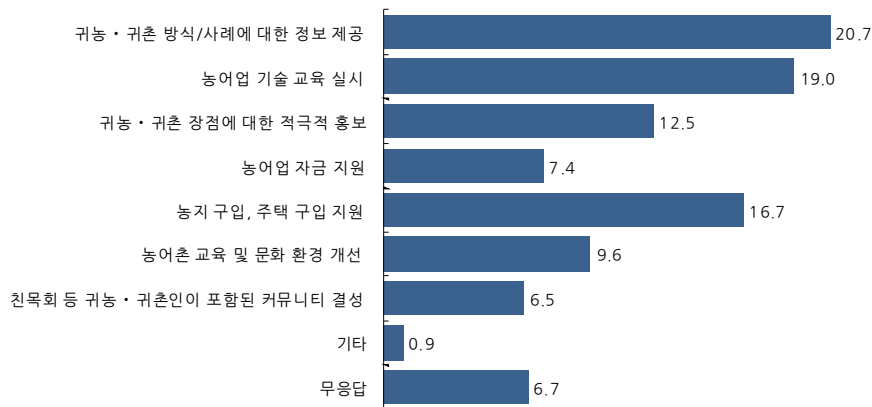


□ 귀농·귀촌에 필요한 정책, ‘정보 제공’ ‘기술 교육’

- 농업인에게 현재 거주하는 마을에 귀농·귀촌한 가구 수를 물어본 결과, ‘한 가구 이상 있다’는 응답이 56.4%였으며, ‘없다’가 39.1%였음
 - ‘1~2가구’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3~4’가구 11.4%, ‘5가구 이상’도 8.2%였음
- 귀농·귀촌한 가구가 있다는 응답자(n=336)를 대상으로 귀농·귀촌한 가구의 적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잘 적응한다’는 응답이 26.4%, ‘적응 못 한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남
-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20.7%), ‘농어업 기술 교육 실시’(19.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지 구입, 주택 구입 지원’(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인식(농업인)

단위: %



□ 행복지수 농업인 67점, 도시민 70점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도시민이 3점 높았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기존에 조사되었던²⁾ 국민행복지수와 비교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영역별 자신의 행복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인의 경우 ‘가정생활’의 행복점수가 7.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생활’(7.2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7.0점), ‘자신의 건강 상태’(6.0점), ‘자신의 재정 상태’(5.3점)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도시민은 ‘자신의 건강 상태’(7.4점), ‘가정생활’(7.3점),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7.3점), ‘사회생활’(6.9점), ‘자신의 재정 상태’(6.3점) 순으로 나타나 농업인과 행복점수 순위에 차이를 보임

2) 2005년 글로벌리서치가 국민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는 66.2점으로 나타남.

- 김승권 등. 2008. 『한국인의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pp. 301-3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 2,000명 조사, 심리적 안정 등 9개 항목 평균 행복지수가 67.8점으로 평가됨.
- 2011년 서울연구원이 서울 시민 45,406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와 같은 문항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66.5점으로 나타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2013. 4.) 농업인 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도는 68점으로 유사함.

표 6. 도시민과 농업인의 행복도 인식

단위: %

구 분		전체	보기 항목					행복지수
응답자 특성	(사례수)		자신의 건강 상태	자신의 재정 상태	주위 친지, 친구 관계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농업인	(552)	6.7	6.0	5.3	7.0	7.7	7.2	자신의 건강상태: 도시민 7.4, 농업인 7.2 자신의 재정상태: 도시민 6.3, 농업인 5.3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도시민 7.0, 농업인 7.3 가정생활: 도시민 7.3, 농업인 7.7 사회생활: 도시민 6.9, 농업인 7.2 전체: 도시민 7.0, 농업인 6.7
도시민	(1,500)	7.0	7.4	6.3	7.3	7.3	6.9	
F		23.81***	256.31***	130.12***	10.69***	25.45***	11.87***	

주: *p<.05, **p<.01, ***p<.001

5. 요지 및 시사점

-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에서 농업인이 도시민에 비해 농촌 현실과 미래를 보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납세자이면서 소비자인 도시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점은 희망적인 요소로 파악되었음
- 올해 농사에 불만족한다는 농업인 비율이 만족한다는 비율과 비슷한 30%대 수준으로 조사된 가운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자재값 상승과 소득 감소를 지목해 농가 소득안정 대책이 요구됨
 -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일손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소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 64.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10년 후 한국농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54.3%가 비관적으로 전망함
 - 도시민도 10년 후 농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시민 중 농업인에 대한 세제 혜택과 농촌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각 2배와 4배 가까이 높았음
 - 다만 의사표명을 유보한 비율도 5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농촌 실상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함
- 현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농정 기본 방향 중 농업인은 복지 정책에, 도시민은 소득정책에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부가 제시한 5대 주요 정책과제 중요도를 농업인은 맞춤형 농가소득 경영안정, 도시민은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1순위로 꼽았음
- 향후 5년간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투자가 확대되기를 바라는 분야로 나타남

-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 보상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민 60.4%는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책을, 33.1%는 이익을 보는 산업 분야에서 농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
 - 한-중 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되면 국내 농업에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농업인과 도시민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농업인이 피해 의식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6차산업화 등 새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른다는 농업인이 48.0%로 나타나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내년에 가장 역점을 뒀야 할 정책으로는 '한-중 FTA 문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농식품부 예산 증액' 순으로 꼽았음
-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이 34.6%로 도시민의 48.4%보다 다소 낮게 조사되었고,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인의 분야별 지역생활 불만족도는, '소득원·일자리 환경'(59.4%), '문화·체육·여가 환경'(53.6%), '교육 환경'(44.6%) 순임
- 도시민 43.6%는 농촌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귀농·귀촌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하여 농업인은 '귀농·귀촌 방식/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도시민은 '정부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도시민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여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농업인은 67점, 도시민은 70점으로 나타남. 다만 농업인의 재정 상태 항목은 행복도가 53점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의식, 그리고 정책 요구가 파악되었음. 이 조사 결과가 국민의식과 수요에 기초한 농업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되기를 기대함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인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회)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물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회)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3. 12. 17

발 행 2013. 12. 18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4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09-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